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Morning Brief

하루에 하나



2026.7.16

JULY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원/달러 환율

1,492.20원 (-12.70 원)

KOSPI

7,284.41 (+427.58, +6.24%)

KOSDAQ

829.43 (+45.45, +5.80%)

국고채 10년 금리

4.327 (-0.006%p)

동 자료는 오늘 발간된 자료의
요약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각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hanafn.com



Special Report

Total ETF	Core+ [박승진]
데이터센터	데크크(Data center Creator Crew) [이준호, 유재선, 김승준, 한유건, 권태우, 박찬솔]

Global Asset Strategy

자산배분의 창(窓)	AI 테크기업들의 회사채 발행, IG 시장을 바꾸다 [이영주]
신흥국 전략	인도 물가·수출입 지표로 드러난 단기 경기 부담 [김근아]

기업분석

에치에프알	AI RAN이 HFR의 위상을 송두리째 바꿀 것 입니다 [김홍식]
동국제약	해외 산업 탄력을 받다 [박종대]
SK이노베이션	이제는 사야 할 시점(+ TerraPower 탐방기) [윤재성]
파마리서치	2Q26 Pre: 몸집 커진 연어에게 한국 시장은 너무 짝 꺼 [김다혜]

산업분석

카지노	관광진흥개발기금 세율 상향 추진 [이기훈]
-----	-------------------------

Weekly

통신 서비스/장비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김홍식]
유틸리티	한국도 납기가 우선시된다면 [유재선]

글로벌리서치

사이버보안	기업의 보안 지출 증가 국면에서 주목할 3가지 동향 [김재임]
-------	------------------------------------

단기투자유망종목

삼성전자, KB금융, 삼성SDI, 대한항공, 삼양식품, 키움증권, 에이블씨엔씨, 심텍, 올릭스

하나증권

2026년 7월 16일 | Global Asset Research

Global ETF

Compliance Notice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자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Total ETF

Core+

Market & Ideas: 유동성 환경의 변화 가능성과 무결점 스토리를 약화시키는 피크 아웃 우려. 변동성 대응 포지션의 조합

- 에너지 가격 상승에 의한 물가 압력은 정점을 통과. 지난 3월~5월 사이 부담 요인으로 반영되었던 방향성의 변화
- 다만 물가에 대한 경계심리는 불가피. 반도체 가격 상승, AI 사용 비용 등에 의한 인플레이션 부담 지속
- 기업들의 경우 여전히 관세 영향권에 자리하고 있는 경우들이 다수 확인. 공급 부문의 노이즈 요인
- 통화정책 예상 경로 변화 가능성에 대한 고민 필요. 인플레이션 제외시 세부적인 펀더멘털 훼손 시그널 누적
- 미국 고용시장에서 고임금 포지션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 가계 전반의 소득 기반이 점진적으로 약화
- 경제활동 참가 인구 감소 가운데 실업률 왜곡 현상 발생. 임금상승률과 함께 세부 노이즈 반영 중
- 펀더멘털 훼손의 디테일들은 투자 사이클의 중심에 있는 IT(AI 밸류체인)이 시장을 끌고 갈 수 밖에 없는 이유
 - 다만, 3분기를 지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수익화 시기와 자본 확보에 대한 불안감이 부각될 가능성 염두
- 전략 집중 현상과 실적 우위 및 다양하게 등장하는 경쟁상황, 유동성 환경 변화 가능성에 대비
- 포트폴리오 관점에서는 여전히 유효한 모멘텀의 Core를 유지하면서, 변동성 대응 전략의 조합 필요

ETF Ideas: 중심이 유지되는 가운데 미세조정이 반영되는 스토리. 시장의 고민을 반영하는 포트폴리오 변화

- 1) AI&Tech: 이견없는 AI 산업의 성장 신뢰. 변화하는 상황에 대응하는 포지션 조정 고려
 - ① 중국: CQQQ, KWEB, SMHC, KODEX 차이나반도체TOP10, TIGER 차이나반도체FACTSET, RISE 차이나반도체TOP4Plus
 - ② Tech: CHAT, BAI, MAGS, KODEX 미국AI테크TOP10, KIWOOM 코리아테크TOP10, TIME 글로벌AI인공지능액티브, 에셋플러스 코리아 대장장이, CIBR, TIGER 글로벌AI사이버보안
 - ③ 반도체: SMH, SOXX, DRAM, KODEX AI반도체TOP2플러스, ACE AI반도체TOP3+, KODEX 미국반도체TOP3플러스, KoAct 글로벌AI메모리반도체액티브, PLUS 글로벌HBM반도체

- 2) 채권혼합: 다양한 형태의 안정성 조합 + 연금계좌에서의 활용



Global ETF 박승진 sj81.park@hanafn.com
RA 신민건 mingun.shin@hanafn.com

- SOL 코스피200채권혼합50, WON 삼성전자현대차채권혼합50, PLUS 200위클리커버드콜채권혼합, 1Q 현대차기아채권혼합50
 - TIME 미국나스닥100채권혼합50액티브, KoAct 미국나스닥채권혼합50액티브
- 3) 인프라/제조업: 트럼프 정부의 리쇼어링과 미국 내 생산기업 수혜 기대, Hyperscalers의 Capex 모멘텀
- PAVE, RSHO, MADE, AIRR, ACE 미국 중심 중소형 제조업
- 4) 데이터센터: AI 인프라 투자 사이클 진행 과정에서의 수혜 전망
- DTCT, SRVR, IDGT, RISE 글로벌데이터센터리츠(합성)
- 5) 메디컬/바이오: 시장 환경 변화 과정에서 개별 모멘텀 부각 기대 영역
- XBI, 1Q 미국메디컬AI, KODEX 미국S&P바이오(합성)
- 6) 금융/증권: 주주환원 정책과 증시 거래 증가 수익의 실적 반영 전망 유효
- KBWB, KBE, KRE, WON 초대형IB&금융지주, KODEX 미국금융테크액티브
- 7) 커버드콜 액티브: 커버드콜 전략의 유연한 비중 조정을 통해 국면 변화에 대응
- KODEX 미국성장커버드콜액티브, KODEX 미국배당커버드콜액티브
 - TIGER 미국30년국채커버드콜액티브(H), ACE 고배당주Plus커버드콜액티브, SOL 국제금커버드콜액티브, PLUS 200커버드콜액티브
 - TIGER 배당커버드콜액티브, TIGER 반도체TOP10커버드콜액티브, KODEX 테슬라커버드콜채권혼합액티브
 - ACE 미국배당퀄리티+커버드콜액티브, KIWOOM 코스닥150커버드콜액티브, SOL 미국500타겟데일리커버드콜액티브
- 8) 퀄리티: 변동성 확대 국면에서 유효한 퀄리티 모멘텀의 활용
- JOET, QUAL, SPHQ, QGRO, QDIV

2026년 7월 16일 | 산업분석_Industry In-depth

Overweight

Top Picks 및 관심종목

*CP 2026년 7월 15일

NAVER (035420)

BUY | TP 400,000원 | CP 189,600원

삼성에스디에스 (018260)

BUY | TP 240,000원 | CP 199,300원

SK이티닉스 (475150)

BUY | TP 66,000원(상향) | CP 53,300원

SGC에너지 (005090)

BUY | TP 76,000원 | CP 39,900원

GS건설 (006360)

BUY | TP 52,000원 | CP 28,750원

삼미금속 (012210)

Not Rated | CP 6,780원

삼아알미늄 (006110)

Not Rated | CP 34,950원

지투파워 (388050)

Not Rated | CP 7,050원

삼영 (003720)

Not Rated | CP 6,100원

에이텀 (355690)

Not Rated | CP 4,270원

케이아이엔엑스 (093320)

Not Rated | CP 137,000원

지엔씨에너지 (119850)

Not Rated | CP 32,250원

Analyst 이준호 junholee95@hanafn.com
 Analyst 유재선 jaeseon.yoo@hanafn.com
 Analyst 김승준 sjunkim@hanafn.com
 Analyst 한유건 hyg0619@hanafn.com
 Analyst 권태우 tkwon@hanafn.com
 Analyst 박찬솔 chansolpark@hanafn.com
 선임연구원 하민호 minhoha@hanafn.com
 RA 윤채리 yooncherry@hanafn.com

데이터센터

데크크(Data center Creator Crew)

AI/인터넷: 2030년 AI DC 수요 전망, 풀스택 AI 서비스 제공자 추천

국내 데이터센터 시장은 국내 소재의 제조 AI 팩토리, 소버린 AI 클라우드 인프라로 재편되고 있다. 정부-SK-GS-네이버가 주도하는 총 18.4GW 규모의 AI 데이터센터 메가 프로젝트는 국내 전력 및 데이터센터의 잠재력에 대한 눈높이를 대폭 상향시켰다. 하나증권은 2030년까지 추가로 필요한 국내 AI DC 유효 수요를 Base 시나리오 +3.0~4.2GW, Bull 시나리오는 +5.1~7.0GW로 제시한다. 유효한 수요, 그리고 잠재 수요까지 감안한 DC 증설 과정에서 밸류체인별 사업적 기회는 충분하다. AI DC로 가장 큰 매출을 창출할 수 있는 네이버와 삼성에스디에스를 추천한다.

유틸리티: 당장 전력수급 문제 없음. 중장기 인프라 투자 확대 예상

현재 한국은 전력이 부족하지 않다. 동해안처럼 계통 이슈로 설비 이용률이 낮은 지역에서 AI 데이터센터 건설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다. 한편 3대 메가프로젝트를 달성하려면 대규모 인프라 확충이 전제되어야 한다. AI 데이터센터 18.4GW에서 발생하는 수요만 감안해도 2025년 전력사용량의 20% 이상이기 때문이다. 원자력 등 기저전원 비중 확대가 예상되며 천연가스의 역할도 부각될 전망이다. RE100 수요 증가 흐름에서 수혜가 가능한 SK이티닉스, 데이터센터 부지와 전력을 동시에 공급하는 모델을 구축 중인 SGC에너지를 추천한다.

건설: MW당 80억원, 2030년까지 3GW 24조원 시장, 계열사 수혜

데이터센터는 무정전 전력공급 운영, 효율적인 냉각 설계가 중요하며, 시운전 시 정상 가동(부하시험, PUE 신뢰성 검토 등)까지의 과정이 통합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대형 건설사가 데이터센터 공사를 진행해왔으며, MW당 80~100억원으로 수주한다. 2030년까지 최소 3GW의 증설이 가능하다고 볼 때, 건설업이 수주 가능한 금액은 약 24조원이다. 데이터센터가 그룹사 주도로 진행될 것을 고려할 때, 계열사의 수주를 기대해볼 수 있다. 건설사 중 GS건설을 데이터센터 수혜주로서 최선호로 추천한다.

미래산업: AI 데이터센터 확산, 중소형 밸류체인 수혜 본격화

데이터센터의 초고집적화 및 AI 연산량 증가에 따라 전력 소비와 발열을 해결하려는 전방 기업들의 수요가 폭발하면서, 소재(알루미늄박)에서부터 정밀 기계(커넥팅로드), 인프라(소배전반), 트래픽 처리(IX 및 IDC), 비상 전력망(발전기)에 이르는 중소형 핵심 밸류체인의 전방위적인 수혜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원가 구조의 개선과 주요 생산 설비 및 증설 효과가 올해 하반기를 기점으로 극대화되면서, 가동률 상승 및 수주 확대를 동반한 구조적 성장 가속화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2026년 7월 16일 | Global Asset Research

Asset Allocation

Compliance Notice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자산배분의 창(窓)

AI 테크기업들의 회사채 발행, IG 시장을 바꾸다

AI 투자 확대, 회사채 시장의 새로운 자금 수요

AI 경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그동안 시장의 관심은 GPU와 데이터센터 투자 규모에 집중됐지만, 최근에는 그 막대한 투자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AI 생태계는 기술기업과 금융시장, 사모금융시장이 자금을 공급하는 트라이앵글 구조를 형성하며 상호 의존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투자등급 (IG) 회사채 시장 또한 AI 투자 확대의 핵심 자금 공급처가 되고 있다.

AI 투자 확대에 따라 관련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은 이미 지난해 연간 규모를 크게 넘어서는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Amazon, Microsoft, Alphabet, Meta, Oracle 등 주요 하이퍼스케일러는 2026년 상반기에만 약 1,940억 달러의 미국 투자등급 회사채를 발행했다. 이는 지난해 연간 발행 규모의 두 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여기에 SpaceX도 250억 달러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하며 대형 발행자 그룹에 합류했다. Alphabet 역시 미국 달러채뿐 아니라 유로화, 파운드화, 스위스프랑 등 해외 채권시장까지 활용하며 AI 투자 재원을 조달하고 있다.

회사채 시장도 AI를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는 회사채 시장의 구조에서도 확인된다. AI 투자가 본격화되기 이전 주요 테크 기업들의 공모 투자등급 회사채 시장 비중은 약 4.0%에도 미치지 못했다. 막대한 현금창출력을 바탕으로 외부 차입에 크게 의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AI 인프라 투자가 급격히 확대되면서 기술기업은 이제 회사채 시장에서도 핵심 발행자로 자리 잡고 있다.

Bloomberg US Corporate Index에서 은행업은 약 21%로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AI 관련 회사채 공급 증가에 힘입어 기술업종 비중도 약 10%까지 확대되었다. Wells Fargo는 2026년 기술기업 투자등급 회사채 발행 규모가 약 3,5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AI 투자는 이제 주식시장뿐 아니라 회사채 시장의 구성과 수급까지 변화시키기 시작한 것이다.

조달비용도 이미 상승하고 있다. 연초 이후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약 62bp 상승하면서 전 업종의 절대 조달금리가 높아진 가운데, 기술과 커뮤니케이션 업종의 신용스프레드도 확대됐다. 기술업종 스프레드는 연초대비 7.6bp 상승했으며, 이에 테크기업의 평균 신규 발행금리도 약 64bp 높아졌다. 이는 시장금리 상승이라는 공통 부담에 대규모 회사채 공급에 따른 추가 프리미엄까지 더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AI 투자, 자본시장의 선별이 시작되다

AI 산업은 이제 점차 자본집약적 (Capital-intensive) 산업으로 변화하고 있다. 제조업이나 에너지 산업에서는 대규모 설비투자가 일반적이며, 시장 역시 투자 규모보다 투자수익률과 현금창출력을 중심으로 기업을 평가해 왔다. 반면 빅테크는 오랫동안 자산경량화 (Asset-



자산배분/해외크레딧
Analyst 이영주 leeyoungju@hanafn.com

light) 모델을 기반으로 성장해 온 만큼, 최근의 AI 투자 확대는 시장이 새로운 산업 구조에 적응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최근 Amazon 회사채 발행에서도 확인됐다. 이전보다 주문 경쟁률은 낮아지고 발행 프리미엄은 높아졌지만 발행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자금 공급이 부족해졌다고 해석하기보다 투자자들이 이제는 AI라는 성장 스토리보다 투자수익률과 위험을 더욱 엄격하게 평가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지 모른다.

앞으로 AI 관련 회사채 발행이 계속 늘어난다면 이러한 선별 과정은 더욱 뚜렷해질 수 있다. 특히 A~AA급 하이퍼스케일러와 BBB급 발행기업 간의 조달 여건의 차별화가 예상된다. 즉, 높은 현금창출력과 재무유연성이 검증된 상위 투자등급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자금조달이 가능하겠지만, BBB급 이하 기업들은 레버리지와 투자 회수기간에 시장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다.

투자 수요에 대한 우려가 커지겠지만, 이러한 변화는 AI 투자 생태계가 성숙하고 있다는 신호일 것이다. 모든 기업이 동일한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시장보다, 자본이 더 효율적인 기업과 프로젝트로 배분되는 시장이 장기적으로는 더 건강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투자 규모가 계속 커지는데도 모든 회사채가 높은 주문 경쟁률을 기록한다면, 오히려 자산가격 과열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향후 시장은 투자 규모보다 기업별 경쟁력과 자금조달의 지속 가능성을 더욱 중요하게 평가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AI 관련 회사채 발행과 신용스프레드뿐 아니라, 사모신용·JV·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이어지는 AI 투자 트라이앵글 구조가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

2026년 7월 16일 | Global Asset Research

인도

신흥국 전략

인도 물가·수출입 지표로 드러난 단기 경기 부담

Compliance Notice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물가·수출입 지표가 보여준 비우호적인 단기 여건

금주 인도의 물가·수출입 데이터가 발표됐다. 인도 경제의 중장기 성장 동력과 증시의 투자 매력력이 견조한 내수에 기반하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 상승은 소비와 투자를 제약하고, 무역 수지 악화는 루피화 약세와 수입물가 상승을 통해 내수 경기에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두 지표의 중요성은 한층 높아졌다.

우선 6월 헤드라인 CPI는 YoY +4.38% 상승해 5월 +3.94% 대비 오름폭이 확대됐으며, 17개월 만에 중앙은행(RBI)의 물가안정 목표치인 4%를 상회했다. RBI의 관리 범위 상단인 6%를 벗어난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최근 물가 상승을 주도한 식품과 연료·운송비 압력이 단기간에 낮아지기 어렵다는 점이다. 식품 물가의 향방은 당분간 카리프 작물의 작황에 크게 좌우될 전망이다. 몬순 초반 강수량이 부족했던 탓에 7월 10일 기준 카리프 작물 파종 면적은 YoY -16% 감소했다. 6월 말 40% 안팎까지 확대됐던 강수 부족량이 7월 중순 16%로 축소된 점은 긍정적이나, 엘니뇨 발생 가능성과 지역별 강수 편차를 고려하면 작황 부진 우려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몬순 부진이 이어질 경우 카리프 작물 생산 감소가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연결되면서 식품 물가 부담이 장기화될 수 있다. 연료와 운송비 상승 압력도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미국과 이란 간 충돌이 재차 격화되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과 선박 운항 차질 우려가 반복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국제유가가 고점 대비로는 하락했지만, 중동 정세 변화에 따라 유가 변동성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경계감은 유효하다.

6월 무역 적자 규모는 304억 달러로 YoY +59% 증가했다.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운항 차질이 수출에 영향을 미친 가운데,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수입액도 증가한 데 따른 결과다. 종전이 지연되면 수출 차질과 원자재 수입 비용 증가가 이어지면서 무역 적자가 추가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서비스수지 흑자를 통한 상쇄 효과도 약해져 경상수지 적자 폭이 커질 수 있다. 한편, 달러 대비 루피화 가치가 사상 최저 수준에 근접한 상황에서 경상수지 부담까지 가중될 경우 루피화 약세 압력도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종합하면 최근 발표된 두 지표는 인도 경제를 둘러싼 단기 여건이 비우호적임을 나타내고 있다. 증시 측면에서도 물가 상승과 무역적자 확대는 내수 경기 둔화 우려를 높이는 동시에 루피화 약세를 통해 외국인 수급에 부담을 주며 단기 투자심리를 제약할 수 있다. 다만, 현재의 우려스러운 상황은 몬순 부진과 중동 정세 불안 등 공급 측 충격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구조적인 펀더멘털 악화로 단정하기는 이르다. 향후 강수 여건이 정상화되고 군사적 긴장이 완화될 경우 투자심리도 비교적 빠르게 회복될 여지가 있다는 판단이다.



Analyst 김근아 geunak@hanafn.com

2026년 07월 16일 | 기업분석_기업분석(Report)

BUY (유지)

목표주가(12M) 50,000원
현재주가(7.15) 17,520원

Key Data

KOSDAQ 지수 (pt)	829.43
52주 최고/최저(원)	38,050/11,580
시가총액(십억원)	233.2
시가총액비중(%)	0.05
발행주식수(천주)	13,309.0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442.3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13.2
외국인지분율(%)	12.87
주요주주 지분율(%)	
정종민 외 2 인	30.66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145.2	273.5
영업이익(십억원)	(0.4)	50.5
순이익(십억원)	(5.0)	36.9
EPS(원)	1,142	5,921
BPS(원)	12,252	18,374

Stock Price**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157.1	142.0	134.2	324.6
영업이익	(20.2)	(1.6)	(14.6)	73.5
세전이익	(15.1)	(1.5)	(18.7)	72.7
순이익	(18.6)	(0.3)	(19.3)	57.7
EPS	(1,384)	(23)	(1,447)	4,335
증감율	적전	적지	적지	흑전
PER	(12.82)	(503.48)	(12.11)	4.04
PBR	1.47	1.03	1.75	1.22
EV/EBITDA	(18.37)	37.09	(32.30)	3.41
ROE	(11.34)	(0.21)	(14.35)	37.25
BPS	12,107	11,231	9,999	14,334
DPS	0	0	0	0



Analyst 김홍식 pro11@hanafn.com

RA 이상훈 sanghunlee0121@hanafn.com

에치에프알 (230240)**AI RAN이 HFR의 위상을 송두리째 바꿀 것 입니다****HFR에 대한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50,000원 유지**

HFR에 대한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50,000원을 유지한다. 추천사유는 1) 과기부 주관 AI RAN 실증사업에 글로벌 SI와 같은 자격의 주 수행기관으로 참여하여 AI RAN 선도업체로 인정받았으며, 2) AI RAN 구축을 명분으로 무선장비 내수 매출이 조기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3) 7/22일 미국 어퍼 C밴드 경매 일정 확정 후 빠르면 연말연초부터 미국향 프론트홀 수주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HFR이 과기부 주관 AI RAN 실증사업의 주 수행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HFR이 과기부 주관 AI RAN 선도망 실증사업의 주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 과기부는 5G SA와 AI RAN을 결합한 하이퍼 AI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용접,도장,순찰 등 피지컬 AI 서비스를 실증하는 것을 목표로 SK텔레콤과 KT가 주관하는 2개 컨소시움을 선정했다. SK텔레콤 컨소시움은 2개 사업, 2개 사업연도로 나눠 4개 프로젝트에서 AI RAN을 실증하게 되며, 업체로는 HFR을 비롯하여 삼성전자, 에릭슨, 노키아가 선정됐다. HFR은 그중 1차 사업연도 판교 피지컬 AI 랩을 담당하여 무인자율이송 서비스를 테스트하게 된다. 피지컬 AI에 필요한 업 링크 역량, 초저지연성, 연산 분산, 이동성, 신뢰성이 평가 기준이고, 각 피지컬 AI 활용 현 장별로 최적의 구현 방식을 모색하기 위해 AI RAN 연산 자원 구성도 다변화됐다. 즉, 아직 까진 AI RAN 표준이 CPU와 GPU 방식 중 어느 하나로 통일되진 않았고, 이번 실증사업이 향후 표준 수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AI RAN 실증사업이 향후 해외 진출에 큰 레퍼런스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번 AI RAN 실증사업 파트너사 선정은 공급망내 위상 변화, M/S 확대, 매출 조기실현의 3 가지 관점에서 HFR에 유의미한 호재이다. 우선 HFR이 삼성전자나 노키아의 협력업체로서 실증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점이 가장 중요하다. 즉, 국내 통신사인 SKT는 물론이고 향후 해외 통신사에도 글로벌 SI를 거치지 않고 직납할 가능성이 증가했다. 한편, AI RAN이 아직 태동기여서 국내외에 확실한 선도업체가 없고 아직 실 구축 사례가 없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이번 파트너사 선정이 사실상 HFR의 AI RAN 경쟁력을 국가적으로 공인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니, 향후 해외 진출시 유의미한 레퍼런스로 작용하여 글로벌 M/S 확대도 노력볼만 하다. 마지막으로, 미국과 달리 국내는 신규 주파수 경매 논의가 활발하지 않아 그간 내수 수요 회복이 요원했었다. 하지만 AI RAN 구축을 명분으로 주력인 프론트홀 내수 매출 회복 시점이 더욱 앞당겨졌다.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증사업이 진행되는 점 감안하면 빠르면 내년말부터 내수 매출 회복이 기대된다.

2026년 07월 16일 | 기업분석_기업분석(Report)

Not Rated

현재주가(7.15)

19,060원

Key Data

KOSDAQ 지수 (pt)	829.43
52주 최고/최저(원)	29,900/16,420
시가총액(십억원)	862.1
시가총액비중(%)	0.19
발행주식수(천주)	45,230.4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429.9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8.9
외국인지분율(%)	15.56
주요주주 지분율(%)	
권기범 외 7 인	43.96
박종훈 외 27 인	6.63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1,062	1,194
영업이익(십억원)	115	137
순이익(십억원)	100	113
EPS(원)	1,974	2,321
BPS(원)	16,564	18,683

Stock Price**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2	2023	2024	2025
매출액	662	731	812	927
영업이익	74	67	80	97
세전이익	69	61	85	93
순이익	53	47	61	66
EPS	1,169	1,043	1,353	1,460
증감율	5.0	(10.8)	29.7	7.9
PER	14.2	15.5	12.2	11.7
PBR	1.5	1.3	1.2	1.2
EV/EBITDA	8.1	8.7	7.3	6.4
ROE	10.5	8.7	10.1	9.9
BPS	11,166	12,110	13,409	14,691
DPS	180	180	200	200



Analyst 박종대 forsword@hanafn.com
RA 양정석 jsyang@hanafn.com

동국제약 (086450)

해외 산업 탄력을 받다

2분기 영업이익 264억원(YoY 19%) 전망

2분기 연결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 동기대비 12%, 19% 성장한 2,605억원과 264억 원 수준이 가능할 전망이다. ETC 부문이 고지혈증 치료제 중심으로 YoY 10% 성장하고, 헬스케어 부문 매출이 화장품 수출 증가로 YoY 30% 성장하면서 실적 개선을 견인할 전망이다. 화장품 매출은 YoY 35% 성장하고 있다. 아마존 프라임데이 매출은 전년 대비 10배로 늘었다. 다만, 아마존 프라임데이 매출이 7월로 계상되면서 2분기 마케팅비 부담이 다소 커진 상태이다. 따라서, 1분기 대비 영업이익률은 소폭 하락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3분기 수익성 개선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연간으로 보면 큰 의미는 없다. 동국생명과학 매출이 진단장비 판매 부진으로 YoY 28% 감소하는게 아쉬움이지만 영향은 제한적이다.

해외 사업 빠른 확장

동국제약은 히어로 제품 마데카크림 타임리버스가 2025년 12월 아마존 뷰티 톱 101위, '26년 2월 톱 82위까지 상승하면서 해외 사업 확장이 속도를 내고 있다. 마데카크림은 아마존 프라임데이 기간 Face Moisturizers 카테고리에서 9위까지 상승했으며, PDRN 리프팅 아이크림이 Eye Treatment Products에서 같은 기간 1위를 기록하면서 신규 카테고리 가능성을 열었다. 미국 아마존 성과를 기반으로 오프라인 채널 및 지역 확장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5월 얼타뷰티 1,400개 매장에 입점했는데, 3분기에 SKU를 확대 예정이다. 메이저 리테일러 C사 입점도 7월 예정돼 있다. 일본에서는 4월부터 돈키호테/로프트/마츠모토키요시 등 총 1천여 개 오프라인 매장 순차 입점하고 있다. 실리콘투를 통한 매출 확대도 기대된다. 2~3차 발주가 이어지고 있는데, 작년까지 미미했던 매출이다. 이에 따라 화장품 해외 매출 비중은 전년도 10% 수준에서 1분기 20% 이상, 2분기에는 30%까지 상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재 주가 12MF PER 8.7배, 현저한 저평가

글로벌 네임밸류 상승에 따른 온오프라인 확장에 속도가 붙으면서 3분기 QoQ 성장을 지속할 전망이다. 국내 사업에서는 OTC 부문에서는 약국용 화장품 브랜드 마데카파마시아와 루온셀이 추가적인 성장 동력이 되고 있다. 최근 국내 화장품 전용 약국 및 건강기능식품(마이핏) 시장 확대에 추가적인 수혜가 예상된다. 화장품 ODM 계열사 리봄화장품의 실적 개선세도 긍정적이다. 한국 화장품 수출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2분기 매출은 YoY 4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한다. 한창 성장하고 있는 비상장 인디 브랜드 O사의 발주가 크다. 리봄화장품은 아직 매출 규모가 50억원 규모의 작은 ODM 회사이지만, 추가적인 설비/R&D 투자가 이어질 경우 성장 여력은 충분하다. 회사의 사업구조가 크게 달라지고 있다. 매출 규모와 수익성이 모두 레벨업 국면에 있는데, 그 가시성 또한 높다. 기업가치 제고를 대비한 저가 매수가 유효하다.

2026년 7월 16일 | 기업분석_Earnings Preview

BUY (유지)

목표주가(12M) 200,000원(상향)
현재주가(7.15) 117,000원

Key Data

KOSPI 지수 (pt)	7,284.41
52주 최고/최저(원)	149,800/89,500
시가총액(십억원)	19,779.2
시가총액비중(%)	0.33
발행주식수(천주)	169,052.8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656.0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79.4
외국인지분율(%)	14.39
주요주주 지분율(%)	
SK 외 12 인	52.09
국민연금공단	6.03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102,548.9	93,942.6
영업이익(십억원)	5,281.7	3,163.0
순이익(십억원)	2,227.1	1,225.6
EPS(원)	12,184	6,597
BPS(원)	148,677	154,678

Stock Price**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74,269.6	80,296.1	102,132.3	93,985.1
영업이익	355.7	448.7	6,524.8	6,210.3
세전이익	(2,302.4)	(5,868.8)	5,005.5	5,470.6
순이익	(2,260.0)	(3,347.9)	3,556.4	4,074.5
EPS	(21,236)	(21,056)	20,883	23,925
증감율	적전	적지	흑전	14.57
PER	(5.27)	(4.81)	5.60	4.89
PBR	0.68	0.78	0.78	0.67
EV/EBITDA	25.24	19.25	5.47	5.14
ROE	(9.65)	(14.42)	15.09	14.88
BPS	164,556	129,671	150,555	174,480
DPS	2,000	0	0	0



Analyst 윤재성 js.yoon@hanafn.com
RA 김형준 do200508@hanafn.com

SK이노베이션 (096770)**이제는 사야 할 시점(+ TerraPower 탐방기)****2Q26 영업이익 컨센 21% 상회 전망**

2Q26 영업이익은 1.8조원(QoQ -16%, YoY 흑전)으로 컨센(1.49조원)을 21% 상회할 전망이다. 석유/화학/E&S의 감익에도 불구하고, 윤활기유가 대폭 개선되며 전사 실적 감익폭은 크지 않을 것이다. 석유사업 영업이익 0.88조원(YoY -56%)을 추정한다. 유가 급락에 따른 일부 재고관련손실 발생 및 역래킹 효과, 내수가격 상한제에 따른 적자 등이 반영된 영향이다. 윤활유 영업이익 0.95조원(OPM 41%)을 추정한다. 이전 호황기인 2021년 평균 OPM 29% 대비 현재 Spot마진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또한 보수적 추정이다. 물량 및 AMPC 증가에 따라 SK온의 영업적자폭(-0.27조원, QoQ +764억원)도 줄어든 전망이다.

2026년 영업이익 사상 최대치 추정. TP 20만원으로 상향 제시

정제마진 강세, 원유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에 따른 OSP의 마이너스 국면 진입은 한국 정유사의 실적 개선 및 밸류에이션 Re-rating 요인이다. SK이노베이션의 윤활기유 Capa는 약 8만b/d로 모두 그룹3로 구성되어 있다. 카타르 Pearl GTL의 설비 타격으로 글로벌 그룹3 윤활기유의 최소 10%가 2027년 상반기까지 정상가동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윤활기유의 호실적도 당분간 지속된다. 긍정적 영업환경을 반영해 3Q26 영업이익 0.92조원(QoQ -57%, YoY 흑전)을 예상한다. 유가 급락에 따른 재고관련손실과 역래킹 효과가 본격 반영되나 과거 대비 이익의 저점은 높을 수 밖에 없다. 연간 영업이익은 6.5조원(YoY +1,505%)으로 사상 최대치를 추정한다. 2026~27년 추정치를 60% 내외 상향하며 TP도 기존 17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한다. TP는 2026~27년 평균 BPS 16만원에 2017~18년 호황기의 고점 밸류에이션 PBR 1.2배를 적용했다. 당시 영업이익 2~3조원 감안 시 보수적 Target Multiple 산정이다. 최근 S-Oil과의 시총 차이가 역대급 수준인 2~3조원까지 축소되었으나, SK이노베이션의 정유/PX Capa가 2배 가량 크며, 윤활기유 내 그룹3 비중이 100%에 Capa는 약 3배라는 점, E&P사업과 SK E&S의 합병 가치 약 6조원 등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SK이노베이션의 시총은 S-Oil 대비 절대 저평가다. 특히, 윤활기유(SK엔무브)는 2025년 11월 초 SK온에 흡수합병되어 CIC 형태로 운영되는데, 이번 실적 호조 사이클에서 SK온의 재무 부담을 크게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 절대 실적 강도 및 Peer와의 상대 가치를 감안할 때, 이제는 사야 할 시점이다.

TerraPower, 또 하나의 중장기 성장 동력

SK이노베이션은 소듐냉각고속로(SFR) 기반 비경수형 차세대 SMR 기업 TerraPower 지분 약 5% 내외(추정)를 보유한 2대 주주다. X-Energy의 91억\$(13조원) 상장, Oklo가 79억\$(12조원)에 거래 중임을 감안하면, 초도호기 완공 시점이 가장 앞선 TerraPower의 지분 5%에 대한 가치는 시총 기준 약 6천억 내외다. 향후 사업 성장 과정에서 가치는 더욱 상향될 것이다. TerraPower의 초도호기 완공은 2030년, 상업가동은 2031년이 목표다. 이미 TerraPower는 미국 내 12개 프로젝트에 대한 수주를 완료했고, 이 중 8개는 Meta와의 협업이다. SK이노베이션은 미국에서의 트랙레코드를 기반으로 2030년부터 국내 및 동남아에 진출해 사업을 본격화 할 전망이다. 중장기 성장 동력이 될 TerraPower의 지분 가치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26년 07월 16일 | 기업분석_스몰캡_Earnings Preview

BUY (유지)

목표주가(12M) 480,000원
현재주가(7.15) 327,500원

Key Data

KOSDAQ 지수 (pt)	829.43
52주 최고/최저(원)	711,000/259,000
시가총액(십억원)	3,402.6
시가총액비중(%)	0.73
발행주식수(천주)	10,389.6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131.6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42.6
외국인지분율(%)	6.46
주요주주 지분율(%)	
정상수 외 7인	34.92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663.3	802.9
영업이익(십억원)	266.2	327.9
순이익(십억원)	217.4	267.9
EPS(원)	18,588	22,668
BPS(원)	74,139	93,061

Stock Price**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350.1	536.3	689.0	856.0
영업이익	126.1	214.4	285.7	364.7
세전이익	115.8	216.5	296.7	377.9
순이익	92.0	165.1	233.0	297.4
EPS	8,608	14,209	20,149	25,714
증감율	15.06	65.07	41.80	27.62
PER	30.49	28.36	16.25	12.74
PBR	5.64	6.76	4.36	3.31
EV/EBITDA	18.26	16.59	8.80	6.40
ROE	18.93	26.88	29.93	29.55
BPS	46,558	59,603	75,035	99,007
DPS	1,100	3,700	3,700	3,700



Analyst 김다혜 kim.dahae@hanafn.com

파마리서치 (214450)**2Q26 Pre: 몸집 커진 연어에게 한국 시장은 너무 짝 꺼****2Q26 Preview: 몸집 커진 연어에게 한국 시장은 너무 짝 꺼**

파마리서치의 2Q26 실적을 매출 1,657억원(YoY+18%), 영업이익 662억원(YoY+18%, 영업이익률 40%)으로 추정, 지난 1분기 제시한 사업부별 QoQ 가이드스를 대체로 충족해 컨센서스를 부합할 것으로 전망한다. **내수 의류기기**는 631억원(YoY+4%) 예상한다. 2분기는 외국인 대상으로 영업하는 피부과 채널에 집중하며 당초 제시했던 QoQ+10%를 소폭 하회할 전망이다. **수출 의류기기**는 271억원(YoY+12%)으로 유럽향 수출 순조롭게 진행되고 유통사 관리 효율화 진행되며 원활한 성장 기대된다. **내수 의약품**은 주요 품목 약제로 137억원(YoY+2%), **수출 의약품**은 200유닛 비중 감소로 92억원(YoY+131%) 예상하며, **화장품**은 외국인 단체 관광객 기여로 **내수 화장품** 169억원(YoY+50%), 동유럽 국가 화장품 규제 변경에 대비한 선제적 매출 40억원 더해지며 **수출 화장품** 346억원(YoY+78%) 전망한다. 전체적으로 수출 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하며 전사 성장을 견인하는 모습이 예상된다.

미국 화장품 제조회사 CG USA 인수로 미국 사업 탄력

7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파마리서치가 미국 화장품 제조회사 CG USA를 인수한 사실이 공개되었다. 회사는 미국향 사업 확장세에 대비해 CAPA를 확대하고 공급망을 효율화 하기 위해 인수를 결정했다. 기존 화장품 사업은 미국에 위치한 자회사 DRJ에서 화장품을 제조해 이를 벌크로 한국에 가져와 충전 후 다시 수출하는 구조로 이루어졌는데, 금번에 취득한 CG USA 공장을 활용하면 해당 과정이 단축되고, 늘어난 수요에 맞춰 보다 많은 물량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수 계약의 규모는 비공개이며, CG USA의 인수 전 연간 매출은 약 1천 5백만 달러 수준으로 파악된다.

올해는 인바운드 효과보다는 수출을 통한 성장이 기대

올해는 외국인 인바운드가 견인하는 내수 의류기기 성장보다는 의류기기, 화장품 지역 확장에 따른 수출 실적이 전체 성장 이끌 것으로 판단한다. 내수 의류기기는 이미 높은 외국인 매출 기여도와 스킨부스터 제품 간 경쟁으로 인해 전년 대비 성장 폭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나, 새로 더해지는 유럽향 의류기기 매출과 고성장하는 화장품 수출이 사업 목표를 초과 달성해 이를 상쇄할 것으로 전망한다. 파마리서치의 연간 가이드스는 매출 YoY+25% 성장이며, 당사 추정 수출 의류기기와 수출 화장품 성장률은 각각 YoY+37%, 47%이다. 파마리서치의 2026년 연간 매출 6,890억원(YoY+29%), 영업이익 2,857억원(YoY+33%, 영업이익률 41%) 전망하여 목표주가 48만원을 유지한다.

2026년 7월 16일 | 산업분석_Issue

Overweight

관심종목

롯데관광개발(032350)

BUY | TP 21,000원(하향) | CP 11,800원

파라다이스(034230)

BUY | TP 18,000원(하향) | CP 10,450원

GKL(114090)

BUY | TP 13,000원(하향) | CP 9,180원

CP 2026년 7월 15일

카지노

관광진흥개발기금 세율 상향 추진

목표주가 하향

15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및 국회가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 상한을 현행 매출액의 10%에서 15%로 높이고 카지노 면허는 주기적인 갱신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언론 보도로는 납부금 상향에 따라 상위 사업자 6곳의 납부액이 이전보다 3~500억원 늘어날 것으로 가정했지만, 2028년쯤에는 파라다이스만 약 5~600억원의 세금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롯데관광개발은 문체부가 아닌 제주도 특별법을 적용 받기에 당장의 우려는 과도하다. 다만, 투자자들이 결국 제주도의 관광진흥개발기금도 상향될 것이라고 우려한다면 이를 불식시킬 방법은 없다. 아직 도입 여부나 시점, 혹은 세율 인상분을 알 수 없기에 실적 전망은 유지하나, 잠재적인 EPS 하향(19~28% 내외) 등의 불확실성을 반영해 카지노 산업의 목표 P/E를 기존 18배에서 15배로 하향한다. 외국인 카지노 3사의 목표주가를 모두 하향하며 단기로는 관망할 필요가 있다.

파라다이스 및 GKL의 잠재적 영업이익 하향 폭은 약 25% 내외

2028년 세율 인상 적용을 가정할 때 파라다이스는 부산/제주의 성장과 하얏트 리젠시의 램프업 효과로 연간 카지노 매출액이 1.2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 5%p 세율 인상을 가정할 경우 연간 영업이익은 약 600억원 혹은 2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잠재적 EPS 하향을 목표 P/E 하향으로 반영해 목표주가를 18,000원(-28%)으로 하향한다. GKL의 2028년 카지노 매출액은 약 5,200억원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며, 역시 세율 인상을 가정하면 연간 영업이익은 약 260억원 혹은 2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의 목표 P/E에 20% 할인(복합리조트 부재)을 적용해 목표주가를 13,000원(-19%)으로 하향한다.

롯데관광개발의 잠재적 영업이익 하향 폭은 약 19%

전술했듯이, 롯데관광개발은 제주도에 위치해 제주도 특별법을 적용 받기에 당장의 세율 인상 우려는 과도하다. 또한, 제주도는 전체 시장의 약 80%를 차지하는 1위 사업자 롯데관광개발이 2025년에 겨우 첫 흑자 전환할 정도로 규모가 크지 않다. 2위 사업자인 제주신화월드의 2024/2025년 카지노 부문 매출액은 1,500억원 내외이며, 영업손실은 각각 236억원/141억원인 점을 감안할 때 제주도가 바로 적용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잠재적 우려를 반영하면 2028년 영업이익은 약 440억원 혹은 19% 하향 된다. 산업의 목표 P/E 하향을 반영하나 10% 프리미엄은 유지해 목표주가를 21,000원(-19%)으로 하향한다.



Analyst 이기훈 sacredkh@hanafn.com
RA 김현수 hyunsookim@hanafn.com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통신 서비스/장비 Weekly | 2026.7.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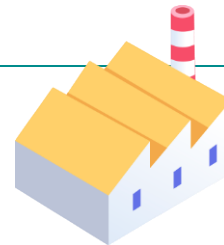
Analyst 김홍식 pro11@hanafn.com

RA 이상훈 sanghunlee0121@hanafn.com

주간 동향 및 코멘트

다음주 투자 전략 및 이슈 점검

- 최근 통신장비주들의 급락을 우려하는 투자자들이 적지 않다. 일부에서는 올해 상반기 강한 주가 상승이 일시적 수급 형성에 의한 테마 성격의 상승이 아니냐고 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한다. 그 이유는 1) 2025년 데이터센터를 기반으로 한 광통신 효과를 맞본 투자자들이 피지컬 AI 달성을 목표로 기지국으로 투자 수요가 옮겨갈 것이란 점을 인지하면서 국내 통신장비주들이 동반 급등하였고, 2), 미국 주파수 경매 일정을 감안하면 국내 무선통신장비 업체들의 실적 회복이 2027년 이후에나 본격화될 전망이다 아직 업황 회복이 나타나지도 않았으며, 3) 업종 특성상 주가가 실적을 1~2년 선반영하는데 2025년 하반기부터 통신장비 업체 주가가 본격 상승 반전하였고, 4) 2030년 초 6G 상용화 일정을 감안 시 2029년 6G 투자가 본격화될 것인데 이에 대한 주가 반영이 2027년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025년 하반기~2026년 상반기가 통신장비주 1차 상승일 가능성이 높고 이번 대세 상승은 빨라도 2028년 상반기까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통신장비 업종 주가 선반영 정도를 감안하면 그렇다. 2026년 6~7월은 통신장비주 중간 반락 과정일 가능성이 높으며 빠르면 7월 말부터 2027년 봄까지 미국 어퍼C밴드 주파수 경매 발표를 재료로 2차 상승이 나타날 것이란 판단이다.
- 국내 규제 기관이 SKT-KT 컨소시엄을 피지컬 AI 상용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본격 나섰다. 산업 현장에 5G 기반 AI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용접/도장/순찰 로봇 등 피지컬 AI 서비스를 실증해 상용화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5G SA와 AI-RAN 기반 네트워크 상용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되며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AI 고속도로 구축 국정 과제의 일환이다. 업계에선 피지컬 AI의 확산이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 전반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각 로봇마다 고가의 GPU를 탑재하는 대신 네트워크에서 AI 연산을 지원하면 기지국 하나로 수백 대의 단말을 동시에 지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말 장비 비용을 낮추면서도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라 기대가 높다. 이러한 규제 기관과 움직임에 감안할 때 2027년도엔 당초 예상대로 국내에서도 AI RAN 활성화를 위한 5G SA 구축에 나설 전망이다. 미국/중국과 대응하려면 이미 생태계 조성이 늦어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AI RAN 활성화를 위한 2027년 국내 5G SA 구축 가능성에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겠다.
- 다음주 7월 22일 미국 FCC(연방통신위원회)가 어퍼 C밴드(3.98~4.14GHz) 160MHz에 대한 경매 여부를 표결을 통해 결정한다. 현재로서는 승인될 가능성이 높는데 이번 미국의 어퍼 C밴드는 국내 무선통신장비 업체들에겐 큰 기회 요인이 될 전망이다. 주파수 할당 폭도 큰 데다가 기존에 사용하지 않던 미지의 주파수 대역이라 네트워크 투자 규모가 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내 통신장비 업종이 미국의 AWS 3 밴드를 필두로 800MHz 주파수 할당의 대장정 시작, 어퍼 C밴드 대규모 투자 임박을 이유로 큰 기회를 맞이할 것으로 언급한 바 있다. 이제 수개월 내 어퍼 C밴드 투자를 예고하는 주파수 경매가 시작될 전망이다. 곧 국내 통신장비 업종이 2차 상승을 시도할 것이란 판단이다.
- 다음주 통신서비스 업종 종목별 투자 매력도는 SKT=LGU+>KT 순으로 제시한다. 통신 3사 중에서는 SKT와 더불어 LGU+를 최선호한다. SKT는 2026년 실적 정상화/AI RAN 사업 본격화/국책 AI 사업자 선정 가능성이 매수 추천 사유이며, LGU+는 2분기 대표 실적 호전주/주주 환원 증대 관련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 실적 시즌 투자 유망해 보인다. 통신장비 업종에선 AI RAN 관련주, 미국 어퍼 C밴드 관련주에 집중 투자할 것을 권한다. KMW, HFR, RFHC가 대표 수혜주이다.



한국도 납기가 우선시된다면

유틸리티 Weekly | 2026.07.16

Analyst 유재선 jaeseon.yoo@hanafn.com

주간 리뷰 및 관심종목

주간 리뷰

- 주간 커버리지 합산 수익률은 시장을 4.3% 하회했다. 13일 종가 기준 WTI 79.2달러/배럴(WoW +13.8%), 미국 천연가스 2.9달러/mmbtu(-10.8%), 아시아 LNG 현물 16.5달러/mmbtu(+2.9%), 호주산 유연탄 128.7달러/톤(+0.2%), 원/달러 환율 1,498.0원(-2.0%)을 기록했다. 미국의 해상 봉쇄가 재개되면서 유가는 가격은 다시 급등했고 JKM 원유물도 상승 전환했다. 국제유가의 영향은 3분기 정점 이후 4분기에 완만해질 수 있으나 아시아 LNG 현물 가격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 14일 한국전력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한 이후 유틸리티 산업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비중확대'로 상향한다.
- 기후부 장관이 13일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신규 원전과 SMR은 전문가 의견 수렴과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12차 전기본에 반영한다고 언급했다. 지난 4월에 공개된 12차 전기본 수요 전망에서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최대전력을 반영했지만 기존 계획을 초과하는 목표가 3대 메가프로젝트로 제시된 바 있다. 모든 자원을 동원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신규 원전 최대 4기 가량 및 장기 SMR 도입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 16차 장기 천연가스 공급계획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토대로 2025년 중 수립될 예정이었으나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다. 2년 주기로 발표되지만 연내 또는 내년 상반기 발표가 예상되는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큰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해당 영향을 반영하여 2027년 17차 계획이 공개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관건은 발전용 LNG 수요 전망이다. 기존 11차 전기본에서 LNG 발전량 비중은 2023년 26.8%에서 2038년 10.6%로 감소한다. 최근 메가프로젝트 관련 단기 전력 수요 대응에 LNG가 주요 수단으로 부각된다면 탄소중립 경로와 함께 LNG 발전량 비중 목표도 수정될 수 있다. 정책 적합성을 감안하면 발전용 LNG 수요가 상향될 여지가 충분하며 한국가스공사 또는 민간 LNG 직도입사의 역할이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 문제는 시간이다. 반도체의 경우 단계적으로 생산능력이 확대되겠지만 최초 증설분의 가동 시점은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 AI 데이터센터도 발전설비 및 전력인프라 구축 대비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가용 자원에서도 납기가 중요시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외 가스터빈 납기를 고려하면 LNG 발전소 외에도 다른 선택지들이 부각될 수 있다. 기존에 진행 중인 모든 발전 프로젝트에 더해 태양광, ESS, 연료전지 등 빠른 상업운전이 가능한 수단들이 우위를 점할 전망이다. 발전원별 상업운전에 이르는 시간의 차이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며 이는 데이터센터가 빠르게 확대된 미국에서도 확인된 수준이다. 태양광, ESS는 해당 사항이 없지만 연료전지의 경우 LNG와 마찬가지로 탄소중립 목표와 어느 정도로 병행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 언론에 따르면 RPS 기반 태양광 20년 고정가격계약의 중도 해지 허용 방안이 검토되는 모습이다. 과거 REC 가격이 낮았을 당시 계약했던 많은 사업자들이 PPA 시장으로 새롭게 진입할 수 있다. 산업용/일반용 전기요금 상승과 RE100 이행 수요에 맞춰 계약 가격이 이전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태양광이 아닌 다른 재생에너지원까지 확대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
- '발전산업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의 합의에 따라 한전KPS는 발전공기업과 계약하는 경상정비 분야의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하청노동자를 직접 고용한다. 정부가 정원 및 총인건비를 설정하며 예산운용지침에 따라 제한된 수준에서 증액이 가능하 때문에 향후 인원 증가에 따른 임금체계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 온실가스 배출권(KAU25) 가격은 15일 종가 기준 25,500원으로 전주대비 0.8% 상승, YTD 145.2% 상승했다.

종목 코멘트

- 한국전력: 원가 부담 재차 확대. 다만 3월 이후 유가 등락에도 우려만 지속적으로 반영 중. 추가 악화 여부 관찰 필요
- SK이터닉스: 반도체 및 AI 데이터센터 전력수요 증가 전망. 국내 RE100 PPA 시장 주요 플레이어로 관심 부각

2026년 7월 15일 | 산업분석

글로벌 산업

사이버보안

기업의 보안 지출 증가 국면에서 주목할 3가지 동향

사이버보안 산업의 분기점, 기업의 보안 지출 증가에 주목

올해 4월 미토스 쇼크 이후 사이버보안 산업에 대한センチ먼트는 빠르게 개선되었다. AI 모델 단독으로 보안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기존 보안 사업자의 강점인 데이터 선순환 효과가 실시간 위협 대응에 필수적이기에 AI 모델이 보안 벤더를 대체할 수 없다는 인식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토스와 같은 고성능 프런티어 모델 등장은 사이버보안 산업의 중요한 분기점이 되고 있다. 사이버위협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며 기업이 보안 지출을 늘리는 트리거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AI 인프라 투자가 IT 예산의 최우선 항목으로 자리 잡으면서 보안 지출 증가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으나, 미토스 쇼크 이후 보안이 AI 도입의 필수 인프라로 재분류되며 기업 보안 지출 비중이 예상보다 빠르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이버보안 Big 3 Trends

사이버보안 산업의 주목할 동향은 크게 3가지다. 1) AI 트래픽 증가는 방화벽을 비롯한 하드웨어 제품 매출 증가 가속화를 견인하고 있다. 포티넷은 AI 인프라 구축으로 늘어난 트래픽 처리량 증가 효과와 가격인상으로 제품 매출 업사이클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팔로알토는 보안 업계 전체 하드웨어 성장 전망치를 기존 5~8%에서 10~12%로 상향조정했다. 2)아이덴티티 보안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 인간ID 대비 머신ID 배수는 2024년 40배, 2025년 82배에서 2026년에는 5월 기준 109배로 추정된다. AI 에이전트 채택 증가는 머신ID 급증 요인에 구조적으로 아이덴티티 보안 수요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3) 플랫폼 기반 통합 사업자를 중심으로 시장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다. 팔로알토는 최근 분기 플랫폼화 계약 110건을 기록했으며, NRR은 120%로 상승했다. 이는 고객사의 플랫폼 결집이 매출 성장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보안 지출 증가 국면에서 ①비용 효율성, ②기술적 통합성 및 관리 편의성을 고려하면 통합 플랫폼 채택 비중은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적시즌 고려할 사항

AI 에이전트 가동을 위한 필수요건으로서 보안의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주가도 빠르게 반영되고 있다. 보안 Big 5 사업자의 주가는 YTD 평균 81% 상승했다. 1)아이덴티티 보안, 클라우드 보안, 엔드포인트 보안 등 AI효과가 큰 보안 영역에서의 시장 위치, 2) 통합 플랫폼 대표 사업자로서 점유율 상승을 통한 보안 지출 증가 수혜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팔로알토(PANW), 클라우드스트라이크(CRWD)에 대한 Top pick 관점을 유지한다. 1)주가에 반영된 높은 실적 기대감, 2)세일즈/도입 사이클에 따른 실적 반영 시차, 3)메모리 등 부품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 등을 고려하면 이번 실적 발표 후 단기적으로 차익실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분기 실적의 진폭보다는 시로 인한 장기 성장을 자체의 재평가가 더 중요하다는 점에서 추세적으로는 긍정적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Analyst 김재임 jamie@hanafn.com
RA 송종원 1223sjw@hanafn.com

단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증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삼성전자 (005930.KS)	7/13	285,000	279,500	-1.93%	- AI 수요 견조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DDR4 가격상승과 더불어 NAND 업황 개선 맞물려 - DDR 및 NAND 가격 상승은 레거시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에게 긍정적
KB금융 (105560.KS)	7/13	184,400	181,600	-1.52%	2분기 추정 순익 1.97조원으로 2조원에 육박해 지주사 설립 이후 분기 최대 순익 예상 - 홍콩 ELS 과징금 이슈 해소로 주주환원 확대 및 밸류에이션 매력 부각
삼성SDI (006400.KS)	7/13	434,000	454,000	4.61%	- 데이터센터향 BBU/ESS 증가와 유럽 EV 배터리 증가로 실적 개선 기대 - StarPlus Energy를 활용한 현지 생산, LFP 라인 전환을 통해 미국 내 공급망 경쟁력 강화
대한항공 (003490.KS)	7/13	26,750	26,650	-0.37%	- 화물운임, 코로나19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급등해 유가 상승의 부담을 상당히 상쇄 2026년 12월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을 마무리할 예정. 합병 이후 실적 개선 기대
삼양식품 (003230.KS)	7/13	1,139,000	1,072,000	-5.88%	- 미주·중국·유럽 중심의 해외 매출 고성장과 밀양2공장 가동을 상순으로 실적 성장 기대 - 중국 신공장 가동 및 추가 생산시설 검토로 해외 비중 확대와 단기 실적 모멘텀 부각
키움증권 (039490.KS)	7/13	336,000	331,000	-1.49%	- 국내 증시 거래대금 확대의 직접 수혜로 1분기 연결 지배주주순이익 4,764억원 기록 - 브로커리지 수수료와 신용융자 이자수익 증가가 실적을 견인
에이블씨엔씨 (078520.KS)	7/13	10,200	10,080	-1.18%	- 미국·유럽 중심의 해외 매출 고성장과 글로벌 매출 비중 70% 돌파로 외형 성장 지속 - 국내 저수익 채널 구조조정 효과와 주주환원 강화로 기업가치 재평가 기대
심텍 (222800.KQ)	7/13	122,700	121,600	-0.90%	- 메모리 기반 단가 인상에 따라 2분기부터 가파른 수익성 개선세 전망 - SOCAMM 관련 PCB에서의 기회가 예상보다 클 전망
올릭스 (226950.KQ)	7/13	123,200	131,200	6.49%	- 로레알·Weiss의 1,108억원 투자로 siRNA 기술력 입증 및 R&D 재원 확보 - OLX702A 2상 진입과 OLX104C 임상 결과 등 하반기 모멘텀 기대

단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주간(This Week)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1.07%	+0.91%p	+71.12%	+7.15%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주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종가기준 -15%선 적용



증장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삼성전자 (005930.KS)	7/13	285,000	279,500	-1.93%	• AI 수요 견조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DDR4 가격상승과 더불어 NAND 업황 개선 맞물려 • DDR 및 NAND 가격 상승은 레거시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에게 긍정적
KB금융 (105560.KS)	7/13	184,400	181,600	-1.52%	• 2분기 추정 순익 1.97조원으로 2조원에 육박해 지주사 설립 이후 분기 최대 순익 예상 • 홍콩 ELS 과징금 이슈 해소로 주주환원 확대 및 밸류에이션 매력 부각
효성중공업 (298040.KS)	7/13	2,924,000	2,868,000	-1.92%	• 미국향 초고압변압기·리액터 수주 확대로 전력 인프라 투자 확대 수혜 부각 • 2분기 미국향 고마진 차단기 물량 매출 인식과 관세 환급 가능성으로 수익성 회복 기대
S-Oil (010950.KS)	7/13	132,100	140,400	6.28%	• 8월 OSP 마이너스 전환과 투자 종료로 이익·배당 매력 확대 기대 • 유가 약세에 따른 사민 프로젝트 수익성 개선과 순차입금 축소 기대
신세계 (004170.KS)	7/13	629,000	610,000	-3.02%	• 백화점 본업의 외국인 매출 확대와 리뉴얼·팝업 효과로 매출 및 영업이익 개선 흐름 지속 • 면세점 흑자 전환과 신세계인테리어셔널 등 자회사 수익성 회복으로 실적 개선 가시성 상승
심텍 (222800.KQ)	7/13	122,700	121,600	-0.90%	• 메모리 기판 단가 인상에 따라 2분기부터 가파른 수익성 개선세 전망 • SOCAMM 관련 PCB에서의 기회가 예상보다 클 전망
피에스케이홀딩스 (031980.KQ)	7/13	136,200	156,200	14.68%	• 2026년 글로벌 OSAT 업체(Amkor, ASE, SPIL 등)의 리플로우 장비 발주 모멘텀 지속 • HBM-CoWoS 후공정 핵심 장비 Reflow-Descum 수혜 전망
삼성증권 (016360.KS)	7/6	119,100	111,100	-6.72%	• 국내 증시 거래대금 확대에 따른 브로커리지 수익 증가로 중심 실적 모멘텀 지속 기대 • 높은 배당성향과 주주환원 기조에 더해 리테일 고객자산 확대가 밸류에이션 재평가 요인
삼양식품 (003230.KS)	7/1	1,119,000	1,072,000	-4.20%	• 미·중·국·유럽 중심의 해외 매출 고성장과 밀양2공장 가동을 상승으로 실적 성장 기대 • 중국 신공장 가동 및 추가 생산시설 검토로 해외 비중 확대와 단기 실적 모멘텀 부각
한국콜마 (161890.KS)	7/1	99,500	107,200	7.74%	• 인디 브랜드의 글로벌 수출 확대, 선크어·스킨케어 주문 증가로 ODM 본업 성장성 강화 • 국내 법인 고성장과 고마진 제품 믹스 개선을 바탕으로 실적 개선 기대

증장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분기(3Q)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12.26%	+1.47%p	+44.97%	-19.04%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분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종가기준 -15%선 적용

ETF 투자유망종목

해외주식분석실



국내 ETF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KODEX A반도체 (395160)	2026.02.27	29,560	41,085	39.0%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4) 양산 본격화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및 한미반도체 등 국내 AI 반도체 밸류체인 핵심 기업에 집중 투자 - 온디바이스 AI 확산과 AI 서버 수요 폭증으로 인한 메모리 수급 불균형 속에서, 차별화된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실적 개선 및 가치 재평가 기대
WON 초대형IB &금융지주 (0154F0.KS)	2026.02.24	15,160	12,640	-16.6%	-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및 밸류업 프로그램의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되는 대형 증권사와 주요 금융지주 등 핵심 금융주에 집중 투자하는 패시브 ETF - 초대형 IB의 구조적 성장성과 금융지주의 안정적인 배당 매력을 동시에 추구. 미래에셋증권, 한국금융지주, KB금융, 신한지주 등 국내 금융 섹터를 대표하는 우량 종목들로 구성
에셋플러스 코리아 대장장이액티브 (442090.KS)	2026.02.24	25,365	28,920	14.0%	- 전방 산업의 경쟁 심화 속에서 부품, 장비, 소재 등 후방 산업(소부장) 내 독점적 지위를 가진 대장장이 기업들에 집중 투자하는 액티브 ETF - 반도체, 방산, 조선 등 한국의 핵심 수출 산업 밸류체인에서 차별화된 기술력을 보유한 강소기업들을 선별 편입. 국내 주요 수출주들의 실적 개선과 맞물려 시장 지수 대비 추가적인 수익 창출 기대
PLUS 글로벌방산 (496770.KS)	2025.03.04	13,000	17,885	37.6%	- 미국과 유럽의 주요 방산기업들을 편입하는 종목. 독일 방산업체 라인메탈디펜스,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 스웨덴의 사브 등이 포트폴리오에 포함 - 트럼프 행정부의 NATO 방위비 압박으로 주요국들의 국방비가 증액되는 추세. 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구조적 수혜를 누릴 것으로 기대

Global ETF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SMH (글로벌 반도체)	2025.11.24	339.12	585.62	72.7%	- 대형주 비중이 높은 대표 글로벌 반도체 ETF. 매출의 50%가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생산 분야에서 발생하는 기업들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 - 엔비디아의 실적과 가이던스를 통해 AI 산업의 꾸준한 성장 모멘텀 확인. SMH는 NVIDIA와 TSMC가 30% 이상의 비중을 차지. Capex 경쟁 지속 가운데 소비된 AI 시장 확장, 신제품 교체 기반의 견고한 수요 기대 유효
DRAM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2026.6.22	80.72	57.30	-29.0%	- AI 혁명 및 대규모 데이터 처리에 필수적인 컴퓨터 메모리 및 스토리지 밸류체인 관련 글로벌 기업들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한 순수 메모리 테마 ETF - 광범위한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기존 ETF와 달리, HBM(고대역폭메모리) 및 차세대 DRAM 시장을 선도하는 핵심 제조사에만 집중 투자하여 차별화된 고성능 모멘텀 수혜 기대
AIRR (미국 중소형 산업재)	2026.6.22	133.25	121.45	-8.9%	- 미국 내 매출 비중이 높은(75% 이상) 중소형 제조업 및 산업재 관련 기업들로 구성 되어 실질적인 미국 제조업 부흥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누릴 수 있는 ETF -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리쇼어링(제조업 본국 회귀) 현상 가속화와 관세 구조 변화 등 트럼프 정책의 지속성 하에서 실질적인 인프라 건설, 기계, 엔지니어링 밸류체인 수혜 기대
SPHQ (미국 대형 퀄리티 주식)	2026.3.23	75.80	86.82	14.5%	- 수익성(ROE), 이익의 질(미결제영업자산 변동), 재무 건전성(레버리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S&P500 내 최상위 우량주 100개를 선별해 투자 - 매크로 불확실성 및 실적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에서 탄탄한 펀더멘털을 보유한 기업에 집중해 지수 대비 견고한 하방 경직성과 장기적인 초과 수익 추구

주: 기준가는 편입일 당일의 종가, 전일종가는 한국 시장 3시 30분 기준.

Calendar

글로벌투자분석실

SUN	MON	TUE	WED	THU	FRI	SAT
7.12	7.13	7.14	7.15	7.16	7.17	7.18
		- 일본 5월 광공업생산 F (-2.1%, 이전치 -1.7%) - 중국 6월 수출 (27.0%, 이전치 19.4%) - 중국 6월 수입 (36.0%, 이전치 27.4%) - 미국 6월 CPI (3.5%, 이전치 4.2%) - 미국 6월 근원 CPI (2.6%, 이전치 2.9%) - 미국 NFB소기업 낙관지수 (97.4, 이전치 95.3)	- 한국 6월 수입물가지수 (20.6%, 이전치 24.8%) - 한국 6월 수출물가지수 (48.9%, 이전치 47.1%) - 한국 6월 실업률 (2.7%, 이전치 2.8%) - 일본 5월 핵심기계수주 (-1.9%, 이전치 15.6%) - 중국 6월 소매판매 (1.0%, 이전치 -0.6%) - 미국 6월 PPI (E 6.2%, 이전치 6.5%) - 유로존 5월 산업생산 (E 0.3%, 이전치 0.1%)	- 한국 기준금리 결정 (E 2.75%, 이전치 2.50%) - 미국 베이지북 공개 - 미국 7월 NAHB 주택시장지수 (E 35, 이전치 35) - 미국 6월 소매판매 (E 0.2%, 이전치 0.9%)	- 미국 6월 주택착공건수 (E 12.5%, 이전치 -15.4%) - 미국 7월 미시건대 소비자심리지수 P (E 51.0, 이전치 49.5) - 유로존 6월 CPI (E 2.8%, 이전치 2.8%) - 유로존 6월 근원 CPI (E 2.4%, 이전치 2.4%)	
7.19	7.20	7.21	7.22	7.23	7.24	7.25
	- 중국 7월 대출우대금리 (E 3.0%, 이전치 3.0%) - 미국 6월 선행지수 (E --, 이전치 0.1%)	- 한국 7월 수입 20일 (E --, 이전치 23.2%) - 한국 7월 수출 20일 (E --, 이전치 60.4%) - 유로존 7월 ZEW 경기심리지수 (E --, 이전치 9.5)	한국 6월 PPI (E --, 이전치 8.5%)	- 한국 2분기 GDP A (E --, 이전치 3.8%) - 유로존 7월 단기수신금리 (E --, 이전치 2.25%) - 유로존 7월 소비자가대지수 P (E --, 이전치 -17.7)	- 일본 6월 CPI (E --, 이전치 1.5%) - 일본 7월 S&P 제조업 PMI P (E --, 이전치 54.8) - 일본 7월 S&P 서비스업 PMI P (E --, 이전치 52.2) - 미국 7월 S&P 제조업 PMI P (E --, 이전치 53.9) - 미국 7월 S&P 서비스업 PMI P (E --, 이전치 51.2) - 미국 6월 신규주택매매 (E --, 이전치 -7.3%)	

주: 1) 괄호 안은 예상치(E), 전월 순, 한국시간 기준 (*E)는 당사 추정치. 2) 유로권, 북미는 전월대비(PCE 디스플레이는 전년동월대비), 아시아, 신흥국은 전년동월대비 기준, 3) P(속보치), A(잠정치), F(확정치)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